

LG 생활가전 트루스팀 앞세워 격차 벌린다



LG 트롬 스타일러 트루스팀

위생과 편리함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LG전자가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스팀(Steam)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100도(°C)의 스팀은 탁월한 탈취 성능과 살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류의 주름 완화, 세탁력 향상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특허받은 트루스팀(TrueSteam)을 주요 생활가전에 적용했고 고객으로부터 차별화된 편리함을 인정받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앞선 기술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비밀병기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팀 가전인 트롬 스타일러의 경우 올해 들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다. 올 2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늘었다. 특히 한 번에 최대 6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대용량 제품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약 50% 증가하며 스팀 가전의 성장을 견인했다. 스타일러는 물 입자의 1천600분의 1만큼 미세한 트루스팀으로 옷의 유해 세균을 99.9% 살균하고 옷에 밴 냄새와 집먼지진드기 등을 없앤다. 스타일러의 탈취 성능은 회식 후 옷에 배인 삼겹살 냄새 등을 깨끗이 제거해준다. 많은 식당이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스타일러를 매장에 비치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밖에 강력한 힘으로 옷을 털어줘 옷 전체의 미세먼지를 골고루 제거하는 무빙행어(Moving Hanger), 바지를 다림질하듯 눌러서 갈 주름을 잡아주는 바지 갈 주름 관리기(Pants Press)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전자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스팀 기술을 세탁기에 적용했다. LG 트롬 세탁기는 미세한 스팀을 분사해 세탁력을 높이고 의류의 냄새, 세균 등을 제거한다. 스팀 세탁 기술은 이듬해인 2006년 산업자원부로부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돼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의 새 기준도 스팀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은 대폭 향상된 세척력과 위생 관리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식기세척기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생산능력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실험 결과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유해 세균을 99.999% 제거하고 세계김치연구소 실험 결과 노로



LG 트롬 워시타워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장관 출혈 대장균 등 식중독 유해균도 99.999% 제거하는 트루스팀의 독보적인 살균력은 프리미엄 식기세척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LG전자는 부산대학교 이지현 교수팀과 함께 '식기세척기와 손 씻겨지 비교 행동 연구'를 통해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세척력이 손 씻겨지보다 약 26% 더 뛰어난임을 입증했다.

차세대 의류 건조기의 기준도 스팀

LG전자는 차세대 제품인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는 출시되자마자 LG전자 건조기 전체 판매량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고, 3주차부터는 스팀 제품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신제품의 3가지 스팀 특화코스는 젖은 빨래를 건조할 때 외에도 옷과 침구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코스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을 통해 땀 냄새 등 옷감에 밴 냄새를 99% 제거하는 탈취성능을 검증받았다.

스팀 리프레시 코스는 셔츠와 같은 소량의 옷을 따로 세탁하지 않고도 옷감의 냄새를 줄이고 가벼운 구김도 완화한다. 침구 털기 코스의 스팀 옵션은 이불을 빨지 않고도 탈취할 수 있고 집먼지진드기도 없애준다. 패딩 리프레시 코스에서 스팀을 적용하면 자주 빨기 어려운 패딩 의류의 냄새를 줄여주고 볼륨감도 복원된다. 이 제품의 스팀 살균코스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 유해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간균을 99.99% 제거한다. ❶



LG 트롬 건조기 스팀 씽큐